

다문화부부의 인문학강좌 참여경험 : 영화만들기를 중심으로

정정미*, 변성원**, 김덕순***, 김정옥****, 박현정*****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The Humanities Cours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uples : Focusing on Movie Making

Jaime M. Kang*, Soung-Won Byun**, Deok-Soon Kim***,
Jeong-Uk Kim****, Hyun-Jung Park*****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Dep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Arts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2학기동안 「상호문화주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다문화 및 선주민 부부의 소통」 인문학강좌시간에 실행한 영화제작 활동에서 그 과정과 결과물을 통해 다문화부부의 경험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활동 참여자 중 면담에 응한 4부부 8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3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8개월이며, 면대면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을 통해 자료가 수집이 되었다. 강좌 참여자들을 통해 얻어낸 다문화가정 부부의 인문학강좌 참여경험에 관한 본질적 주제 경험은 ‘좋은 관계’, ‘수용과 지지’, ‘긍정적인 마음’, ‘성취감’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다문화부부, 인문학강좌, 영화제작, 의사소통, 자기표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uples who participated in the movie making educational activity within the program "Communication Development among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Couples Through Intercultural Praxis." This program was held for 8 months from March 10, 2012 to November 11, 2012. Among the participants, 4 couples agreed for both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and provided data for this paper. The interview result can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four: quality relationship, acceptance and support, positive thinking, and accomplishment.

Key Words : Multicultural couples, Humanities courses, Movie making, Communication, Self-expression

* 본 인문학 강좌는 2012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3 June 2013, Revised 2 July 2013

Accepted 20 July 2013

Corresponding Author: Soung-Won Byun (Sehan University)

Email: bswroh@seha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국인 남편과 이주민여성의 국제결혼건수는 2001년 9,684건에서 2011년 22,265건으로 2.3배 이상 늘어났고, 한편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사례가 늘고 있는데 2002년 1,744건에서 2008년 11,25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4,12]. 이혼건수의 증가 원인으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 남편의 폭력, 고부관계의 악화 등 가족 관계 내의 소통의 단절로 인한 갈등 표출이 제기되고 있다[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외로움', '문화적 격차', '자녀양육 문제', '경제권 박탈', '언어소통의 문제', '가족관계 내 갈등'이 꼽혔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요구하는 사회통합 서비스 1순위는 한국어 교육이며, 직업훈련과 한국 문화교육이 각각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에서 더욱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이 지금까지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은 한국어 교육, 한국음식과 예절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주로 그들을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 및 편입시키는 것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 부부들이 서로의 고유한 문화를 수용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수적이다[10].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 언어와 같은 사회적 상징체계에 담긴 문화적 특징을 알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문학 강좌 내 영화제작 수업을 활용하여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적용한 후, 그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다문화부부가 영화제작 인문학강좌를 통해 어떠한 경험들을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 다문화부부의 영화제작 인문학강좌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부부간 그리고 사회적 소통의 기회와 방법이 공유되고 확산되어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현상학자들이 문학적 원천들(시, 소설, 이야기, 희곡 등)을 현상학적 글쓰기를 위한 사례자료로 그리고 텍스트 원천으로 흔히 사용하지만, 비담론적인 예술자료 역시 현상학적 인간과학을 위해 사용되며, 각 예술매체(회화, 조각, 음악, 영화 등)는 나름의 표현 언어를 갖고 있다[7].

오늘날 '영화'가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영화가 사용하는 '영상언어'의 힘 때문이다. 꿈을 꾸거나 기억, 생각 등을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문자가 아닌 영상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사고 역시 영상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며, 영상언어가 문자언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우리 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표현 할 수 있다고 본다[9].

다문화주의에서 말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언제나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1]. 또한 자신의 표현 경험이 사회 속에서 상호간에 '소통' 되어 질 때 갈등과 소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8] 관계의 경험성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과 연결하여 볼 때 자기 고백적인 영화제작 방식은 비주류 세대인 자신이 겪고 있는 문화 간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에 대한 심리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다문화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러내기 어려운 자신의 내면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2,3].

영화제작과정을 보면 각본을 구성하는 단계는 영화제작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인데 이 단계에서 영화제작자는 자기서사를 어떤 모습으로 표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연기 및 촬영으로 영화제작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연기를 통해서서는 작품서사 속의 인물을 체험하게 되고, 촬영을 통해서서는 관람자의 욕구를 체험하게 된다. 편집과정은 촬영 결과를 구조화하는 작업으로 영화의 특성을 가장 역동적으로 드러내는 일인데, 이 단계에서 자기서사안에 흩어져 있던 각 장면들이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영은 영화제작의 최종 목표지점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영화제작자의 자기서사를 관객들과 공유

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9].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주여성이 만든 27편의 1인칭 다큐멘터리를 분석하면, 연구결과 이주여성의 자기서사는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한국사회가 이들에게 요구하는 한국형 현모양처의 성역할에 순응하거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 주류미디어가 제시하는 피해자나 수혜자, 가부장적 가치의 실천자라는 제한된 정체성과 다르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체험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성숙한 자기서사를 보여주고 있다[11].

결혼이주여성인 당사자가 직접 만들어 2009년부터 3년 간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출품된 단편작을 분석한 결과,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이방인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한 고백으로 그려낸 다큐형식의 영화가 많았으며 낯선 한국에서 살아 가야 하는 이주여성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4].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시에 거주하고 H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부부 총 4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은 33세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카자흐스탄 3명(75%), 베트남 1명(25%)로 중앙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3.2 연구 강좌 구성

본 연구 강좌 구성은 다양한 인문학 영역에 대한 탐구를 통해 참여부부들의 소통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문화적 민감성과 자아존중감을 함양하도록 기획하였다. 1학기는 2012년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14주간 진행되었고, 2학기는 동년 8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13주간 진행되었다.

1학기 강좌는 인문학적 탐구를 통해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아정체성을 재인식하고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와 가족’ 또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은 UCC 영상물을 완성하고, 이를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의 상영관에서 시사하면서 참여자 간의 공유기회를 가졌다.

2학기 역시 부부 간 소통의 방법으로 영상제작과정을 통해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구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서 영화 이론 및 기획, 촬영, 편집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전체 강좌를 종료하는 시점에서는 각자 제작한 영상을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상영관에서 대중들과 함께 감상함으로써 강좌에 참여한 전체 다문화가족들과 대중들 간에 정서적 공유와 지지를 경험하게 하였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각자의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수업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을 하였다. 1단계는 최근 10년간 결혼이주여성들이 만든 단편영화를 감상하였다. 2단계는 강좌시간에 들었던 작품을 근거로 자유롭게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촬영본을 공유하는 단계, 3단계는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상물을 완성하고 상영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인문학강좌 참여경험은 어떠한가?’에 관한 주제적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세 가지 접근 방법인 전체론적 글 읽기, 선택적인 글 읽기, 세분법을 택하였다. 각 접근법을 통해 35개의 의미 있는 진술, 18개의 주제 경험과 4개의 본질적 주제 경험을 도출해 내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 “인문학강좌 참여(영화만들기)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 연구결과

강좌 참여자들을 통해 얻어낸 다문화가정 부부의 인문학강좌 참여경험에 관한 본질적 주제 경험은 ‘좋은 관계’, ‘수용과 지지’, ‘긍정적인 마음’, ‘성취감’으로 나타났다.

<Table 1> Essential Results from Humanities Cours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uples

Experience Theme	Essential Experience Theme
① prejudice reduction ② establishment of new relationships ③ attachment	positive relationship experience
① empathetic ② understanding ③ being respected ④ being assertive ⑤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 ⑥ recognizing genuine intention ⑦ self-reflection	feeling of acceptance and support
① openness ② thankfulness and joy ③ happiness ④ appreciation ⑤ affective emotion	positive thoughts and practices
① feeling of learning something ② accomplishment ③ unforgettable memories ④ self expression	feeling of accomplishment

4.1 좋은 관계

본 인문학 강좌를 참여하는 동안 결혼이주여성 가정 중에 남편이 몸이 불편하고 아이가 어려서 영화 만들기가 어려운 가정이 있었는데, 다른 결혼이주여성 가정이 그 가정을 도와 영화 만들기를 함께 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경험하기도 하였다. 한 달에 두 번을 1년 가까이 하다 보니 수업이 있는 토요일을 자녀들이 기다리기도 하고 교육이 끝난다는 말에 섭섭해 하기도 하였다.

•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짐

한국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없어졌어요 뭔가 늘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생각이 변했어요(결혼이주여성4).

저도 한국사람들이 우리같은 사람들에 대해 차별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결혼이주여성남편4).

• 새로운 좋은 관계가 형성됨

다른 팀의 영화 찍기를 도와주면서 하루를 같이 지내고 보니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기회가 되면 카메라에 담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좋다고 했어요 같이 영상에 관한 공부도 더 해보고 하면 의지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결혼이주여성남편1).

제가 몸이 아파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했는데, 김○○님(결혼이주여성 남편)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형님, 아우하고 지내려고 해요(결혼이주여성 남편4).

• 정이 들었음

한 달에 두 번 만나서 배우고 하다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 섭섭해요(결혼이주여성남편2)

애들이 토요일에 오는 것을 기다렸는데 이제 안한다고 하니가 계속하면 안 되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결혼이주여성4).

4.2 수용과 지지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소통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수용과 지지를 통한 소통의 경험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만들어 내었고, 영화 만들기와 같은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줌

내 마음은 그냥 받아주었던 것 같아요(결혼이주여성1).

교수님들 오셔서 수업 받으면 내가 궁금한 것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교수님들이 들어주고 대담도 해주셔서 좋았어요(결혼이주여성2).

아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내가 만든 영화를 보면서 아내 마음을 알수가 있었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결혼이주여성남편3)

• 나를 존중해주는 느낌을 경험함

무엇인가를 잘하지 않아도 나를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서 좋았어요(결혼이주여성1)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여기 선생님들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가 하고 싶어지고요(결혼이주여성3).

•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음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못하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교수님들 하시는 얘기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교수님이 받아주고 하니깐 마음이 시원하다고해야 하나요?(결혼이주여성2)

영화 만들면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했어요 다른 것 다 좋은데 애들 봐주고 내 행동에 대해 잘한다고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어요(결혼이주여성3).

• 다른 나라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됨

여기 와서 몽골 베트남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른 나라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아이도 집에서 세계지도도 보면서 몽골을 찾아보고 베트남도 찾아보고 해서 정말 기뻐요(결혼이주여성 4).

한국에 옛날 집에 가서 보니까 신기했고,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장면은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몽골)하고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해서 좋았어요(결혼이주여성2).

• 따뜻한 진심

우리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관심을 가져주고, 진심으로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했어요(결혼이주여성3)

여기 오면 다들 우리를 위해 열심히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무뚝뚝한 편인데 아내가 여기 다니면서 행복해 하니깐 여러 선생님들의 진심이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결혼이주여성남편2)

• 나를 돌아봄

여기 와서 영화 만들면서 가족사진을 결혼 초부터 다시 보게 되었는데, 좋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결혼이주여성2).

영화 만들면서 러시아에서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사진은 전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건 나는 여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거라는 거예요(결혼이주여성3).

4.3 긍정적인 마음

강좌 초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참여자 간에 서로 어색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아니더라도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도 소통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수업이 있는 토요일을 기다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하고 어울리기 어려웠던 아이가 변

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여자들은 고마움, 감사함, 행복함 등의 긍정적인 마음을 경험하였다.

• 마음을 열게 됨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어색할 때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그냥 웃기도 하고 점점 마음이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결혼이주여성4).

• 고맙고 기쁨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여기 수업 다니고 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도 잘 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결혼이주여성3).

• 행복함

영화 만든 것 시누이가 보고 칭찬해주어서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시누이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었어? 잘 만들었네!” (결혼이주여성4)

여기 와서 2주에 한번씩 애들라도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기도 하고, 이야기도 전보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결혼이주여성남편3).

• 감사함

애들이 토요일이 되면 여기 언제 가냐고 그래요 애들 때문에 더 일찍 오게 돼요 우리는 좋아요 애들이 여기 오면 용기도 생기고 잘 노니까 감사해요(결혼이주여성4).

• 마음이 뭉클함

영화를 같이 찍으러 나갔는데 촬영을 도와주러 나온 카자흐스탄 친구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마음이 뭉클했어요(결혼이주여성4).

4.4 성취감

참여자들은 강좌를 통해 한국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찾고 구체적인 도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들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다음 단계의 일들도 구상을 하고 있었다.

•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낌

처음에는 인문학이 뭔가 했어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경제도 배우고, 경복궁도 가고 영화도 만들고... 정말 재미있고 많이 배웠어요 나는 경제공부하 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남편한테 참 고마웠어요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잘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결혼이주여성4).

• 무언가를 해낸 자신을 발견함

원래 음악이랑 영상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있고 있었는데 이번엔 영화 만들기 하면서 다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있고 있었던 일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결혼이주여성남편1).

•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이주민 친구 영화 만드는 것 같이하면서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결혼이주여성2).

•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움

여기 살면서 내 얘기를 잘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해도 자꾸 힘들다는 얘기만 했는데 여기 공부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 얘기를 하는 데 다르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나 노래 같은 것으로 내 마음을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영화로 만들려고 벌써 생각했어요(결혼이주여성4).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가 영화제작을 통한 강좌참여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질적 인터뷰를 시도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출신국적이 중앙아시아계(카자흐스탄) 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H센터의 러시아 공동체가 주도적인 참여를 하였고, 실제 인터뷰 참여의 적극성 또한 출신국의 문화적 표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강좌 참여자들을 통해 얻어낸 다문화가정 부부의 인문학강좌 참여경험에 관한 본질적 주제 경험은 ‘좋은 관계’, ‘수용과 지지’, ‘긍정적인 마음’, ‘성취감’으로 나타났다.

본 인문학 강좌 참여자들은 강좌에 참여하는 동안 새로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하였는데, 이는 타문

화권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고립감 등이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4, 재인용]는 기존 연구결과에 대비되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즉 결혼이주여성 가정 중 남편이 몸이 불편하고 아이가 어려서 영화 만들기가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관계 속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어울리기 어려웠던 자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여자들은 고마움, 감사함, 행복함 등의 긍정적인 마음을 경험하였다. 이는 국내거주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갈등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4, 재인용]는 결과에 대비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강좌를 통해 자신이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찾고 구체적인 도전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들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다음 단계의 일들도 구상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한국에서의 적응 위주에서 보다 인문학적인 요소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문학적인 내용을 통해 자아 성찰을 가능하게 하며 문화적 예민성을 강화하여 한국에서의 진정한 적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다문화 부부의 영화제작 경험에 대한 반복 연구 실시를 통해 그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부부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화를 다문화 활동가를 대상으로 공유하여 다문화 교육활동에의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

ACKNOWLEDGMENTS

This Humanities Lecture Program was sponsored by Kore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in 2012.

REFERENCES

[1] Hyoun-Ju Kang, Immigrant Women’s Desire for expressing and preserving the Mother Culture and

- Their Identity.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 [2] Ji-Young Na, The present state and the future prospect of the theoretical study on literary therapeutics.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literary therapy, Vol. 10, pp. 131-167, 2009.
- [3] Ji-Young Na, A Study on the Foreign Students' Introspection Aspects through Creating a Film. Multicultural content research, Vol. 9, pp. 67-99. 2010.
- [4] Soung-Won Byun. Depression experiences of Vietnamese Migrant Inter-marriage Women. Ph.D. dissert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2012.
- [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2006.
- [6] Jeung-Mi Lim, Impact of Sociopsychological Factors on Depression in Female Marriage Immigrants,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10.
- [7] Van Manen, Max; Kyung-Rim Shin. The experience research: the human science study methodology of the analytical phenomenology. Seoul: Hyunmoon publisher. 1997; 2000.
- [8] Youn-Sook Shim. A Study on silver-generation's autobiographical film using a smartphones. Communication design research, Vol. 38, pp. 102-108. 2012.
- [9] Un-Chae Jeong. Creating a Film and Literary Therapy,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literary therapy, Vol. 2, pp. 7-20. 2005.
- [10] Jaime.M. Kang, Dek-Soon Kim, Jeong-Uk Kim, Hyun-Jung Park, Seong-Won Byun. The communication of the multicultural and native couple based on the intercultural praxis. Report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2.
- [11] Ji-A Hong. Self Representation and Identity Issu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First Person Documentary. Media, gender & culture, Vol. 18, pp. 147-188. 2011.
- [12] KOSIS. Statistics Year Book of the population in

dynamic trends. www.index.go.kr, 2012.

정 정 미(Jaime. M. Kang)



- 1984년 6월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전자공학(이학사)
- 1986년 5월 :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교육학석사)
- 1991년 12월 :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철학박사)
- 1991년 9월 ~ 1995년 2월 :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종교학 교수

- 1998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아동교육, 교육방법 및 과정
- E-Mail : jaime@bu.ac.kr

변 성 원(Soung-Won Byun)



- 2000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02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간호, 다문화상담, 영화제작교육
- E-Mail : bswroh@sehan.ac.kr

김 덕 순(Deok-Soon Kim)



· 2002년 2월 : 백석신학교 신학(학사)

· 2005년 8월 : 백석대학교 기독교교육학전공(교육학석사)

· 2010년 2월 : 백석대학교 기독교교육학(교육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외래강사

- 2010년 9월 ~ 현재 : 민들레학교 강사
- 관심분야 : 교육, 청소년상담
- E-Mail : kateishappy@hanmail.net

김 정 옥(Jeong-Uk Kim)



- 1989년 2월 : 중앙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 1991년 8월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2010년 8월 : 백석대학교 기독교교육학(교육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외래강사
- 2011년 1월 ~ 현재 : 용인이주노동자센터
- 관심분야 : 교육공학, 교육방법, 이주노동자
- E-Mail : yy1647@empas.com

박 현 정(Hyun-Jung Park)



- 1995년 2월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04년 5월 : Biola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2월 : 백석대학교 기독교교육학(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교육과정 분석 및 설계
- E-Mail : huiyou93@yahoo.com